

■ 주요 뉴스: 미국 트럼프, 내년 4월 중국 방문 연준 주요 인사들은 12월 금리인하 지지

- EU, 역내 외국인 투자 규정 강화. 독일 11월 Ifo 경기기대지수는 전월비 하락
- 미국과 우크라이나, 라-우 전쟁 종결을 위한 '평화 프레임워크' 마련
- 중국, 20개국과 희토류 동맹. 미국 주도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견제가 목적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12월 금리인하 가능성 고조 등이 영향

주가 상승[+1.6%], 달러화 강보합[+0.01%], 금리 하락[-4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AI 버블 우려 완화, 박테크 강세 등으로 상승
유로 Stoxx600지수는 미국 금리인하 기대, 반도체 관련주 매수 증가 등으로 0.1%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12월 금리인하 기대 불구 엔화 약세 여파 등으로 강보합 마감
유로화 가치는 0.1% 상승, 엔화 가치는 0.3%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연준 인사들의 12월 금리인하 지지 발언 등을 반영
독일은 11월 Ifo 경기기대지수의 부진 등으로 1bp 하락

※ 뉴욕 1M NDF 증가 1472.8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474.9원, 0.15% 하락). 한국 CDS 하락

		11/24일	11/21일	전일대비			11/24일	11/21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705.1	6,603.0	+1.55%	국채 금리 10y	미국	4.02%	4.06%	-4bp
	유럽	562.88	562.10	+0.14%		독일	2.69%	2.70%	-1bp
	중국	3,836.8	3,834.9	+0.05%		영국	4.54%	4.55%	-1bp
	일본	휴장	48,626	-	CDS 5y	한국	23bp	24bp	-1bp
	한국	3,846.1	3,853.3	-0.19%		중국	47bp	48bp	-1bp
	달러지수	100.20	100.18	+0.01%	위험 지표	EMBI+	-	284	-
환율	유로화	1.1521	1.1513	+0.07%		VIX	20.52	23.43	-12.42%
	엔화	156.89	156.41	-0.31%		WTI유	58.84	58.06	+1.34%
	위안화	7.1031	7.1052	+0.03%	원자재	구리	500.2	501.5	-0.26%
	원화	1,477.1	1,475.6	-0.10%		금	4,136.3	4,065.1	+1.75%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ì.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트럼프, 내년 4월 중국 방문. 연준 주요 인사들은 12월 금리인하 지지

-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주석과 전화통화를 갖고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하기로 결정. 시진핑 주석은 내년 하반기 미국을 방문할 계획. 양국 정상은 러-우 전쟁, 펜타닐, 농산물 등을 논의.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농민을 위해 중요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중국과의 관계는 강력하다고 언급
-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진핑 주석이 대만 문제에 관한 중국의 원칙적 입장을 설명하면서 중국으로의 대만 복귀는 전후 국제 질서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 그리고 이제는 미국과 중국이 이러한 성과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
- 한편, 연준 월러 이사는 12월 금리인하를 지지한다고 발언. 현재는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연준의 2대 책무 중에서 노동시장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첨언. 그리고 향후 정책은 경제 지표를 고려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
- 샌프란시스코 연은의 데일리 총재도 고용둔화 우려 등으로 12월 금리인하를 지지한다는 의견 피력. 반면 관세로 인한 비용 증가가 억제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상승 위험은 낮다고 평가
-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Nvidia AI 반도체의 중국 판매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러트닉 상무장관은 해당 사안과 관련된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 만일 Nvidia의 AI 반도체가 중국에 판매되면, 이는 미국의 對中 수출 통제가 완화된다는 의미로 해석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컨설팅기업 Deloitte 조사, 미국 소비자의 추수감사절 연휴 지출은 전년비 감소 예상

- Deloitte의 미국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에 쇼핑 지출을 4% 줄이겠다고 답변. 이는 생활비 부담 증가, 고용 정체 등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
- 한편, 로이터는 정부효율화부가 해산되었다고 보도. 트럼프 정부 출범 초기에 대규모 정부 인력 감축이라는 공약 이행을 위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시작되었으나, 시장에서는 가시적인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분석

■ 도이체방크, 내년 S&P500지수 8000 예상. 유명 투자자 마이클 버리는 AI 버블 경고

- 도이체방크는 내년에도 양호한 기업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시에 따른 수혜가 본격화되면서 S&P500지수 또한 800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 한편, 유명 투자자 마이클 버리는 기술 관련주의 버블 형성, 정책 당국의 방관 등 현재의 증시 여건이 과거 1990년대 기술주 폭락 전 상황과 유사하다고 언급

■ EU, 역내 외국인 투자 규정 강화. 독일 11월 Ifo 경기기대지수는 전월비 하락

- EU 집행위원회는 역내 외국인 투자가 현지 경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명시하도록 제안할 방침. 이는 중국의 투자 관련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
- 한편, 독일의 11월 Ifo 경기기대지수는 90.6을 기록, 전월(91.6) 대비 하락. 이번 결과는 기업의 단기간 내 경기회복 기대가 매우 제한적임을 시사

■ 미국과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 종결을 위한 '평화 프레임워크' 마련

- 미국 국무부는 우크라이나와 러-우 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한 평화 프레임워크를 작성했다고 발표. 또한 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 주권을 온전히 보장하며 지속 가능한 평화를 담보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강조. 한편, 미국 대표단은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 측과 별도 회의를 가질 것이라고 설명

■ 중국, 20개국과 희토류 동맹. 미국 주도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견제가 목적

- 리창 총리는 '녹색 광물 국제경제·무역협력 이니셔티브'를 공개했으며, 이를 통해 남아공, 인도네시아 등과 함께 희토류 등 핵심 광물 협력을 강화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할 방침. 이는 對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미국 등의 움직임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평가
- 한편, 중국 Alibaba의 AI 챗봇 큐원이 출시 1주일 만에 1천만 다운로드 돌파. 이는 미국 오픈AI에 맞서려는 Alibaba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전망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11/25일 현지시각 기준)

- 미국 9월 소매판매·생산자물가·10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
- 미국 9월 NAHB 주택시장지수·S&P/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 독일 3/4분기 GDP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증시 투자자, AI 버블 우려 등에도 주가 반등 기대는 여전 - The Economist

(Why investors are increasingly fatalistic)

- 최근 미국 증시에서 다음과 같은 이상 신호 발신. 첫째, Nvidia의 양호한 3/4분기 실적 발표에도 주가가 하락. 이는 주도 기업의 주가가 부담스러운 수준일 수 있다는 의미. 둘째, 안전자산 선택지가 제한적. 과거에는 달러화, 미국채 등 위험 회피가 가능한 안전자산이 존재했으나 지금은 이러한 안전자산에 대한 확신이 약화
- 셋째, 자산 가격 간의 통상적 관계에 변화 발생. 일례로 이전에는 없었던 엔화와 아시아 주가의 동반 약세가 발생. 그러나 투자자들은 결국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 이러한 운명론적(fatalistic) 태도는 1995~2000년 기간에 주가가 등락을 거듭하면서도 결국 매우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점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

■ AI 관련 회사채 급증,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의 연관성을 높이는 결과 초래 - WSI

(Flood of AI Bonds Adds to Pressure on Markets)

- 최근 AI 투자를 위한 빅테크의 회사채 발행이 급증. 관련 여파로 기업 신용 약화에 대한 투자자 우려가 증폭되었으며, 이는 채권시장과 주식시장 모두에 큰 영향력 파급. 이러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현금 창출 능력이 약하다고 평가되는 Meta, Oracle 등의 회사채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
- 특히, Oracle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보험으로 인식되는 신용부도스왑(CDS) 거래가 급증하였고, 이는 주가에도 부정적 영향. 이와 같이 AI 투자 증가로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의 연관성은 크게 증가. 만일 AI 관련주 주가가 하락한다면, 신용시장도 어려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Janus Henderson Investors)

■ 미국의 K자형 경제, 고소득층 외 소비자의 어려움 가중으로 경기침체 우려 고조 - 블룸버그

(How the K-Shaped Economy Is Hurting Everyone But the Rich)

- 미국 경제는 소비의 비중이 2/3에 이르는데, 소득 상위 20%에 의해 주도(전체 지출의 2/3)되는 K자형 구조를 형성. 이는 주식 및 주택 가격 상승으로 혜택을 입는 고소득층과 인플레이션과 고용 경색으로 구매력 약화를 겪는 저소득층의 소비 패턴 양극화에 기인. 임금 상승률 또한 고소득 가구에 유리하게 전개(BofA)
- 한편, 경제학자들은 지난 수년간 축적된 부의 상당 부분은 주가 급등을 토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가가 소폭 하락해도 소득 상위 20%의 지출이 감소하고, 전체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

■ 미국 내 생계비 압박, 트럼프가 책임져야 할 정치적 대가 - Financial Times

(Affordability is Trump's problem now)

-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고물가를 민주당 탓으로 돌려 승리했지만, 이제는 자신이 당선되었을 때보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졌고, 이를 반영하듯 연준 내부에서도 위원들의 매파 성향이 강화. 이러한 가운데 인플레이션은 트럼프 지지층인 MAGA 유권자의 생계비 문제 심화를 초래
- 일부 식품에 대한 관세 철회에도 두 자릿수 관세율은 뉴노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리쇼어링에 따른 자본지출 증가는 본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 의료비 상승 또한 중요한 문제로 모든 계층의 유권자에 영향
- 특히 인플레이션은 구조적인 현상일 뿐 아니라 순환적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7년에야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치적 책임과 파급 효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몫으로 남을 전망

■ 미국 경제, 과도한 AI 투자 의존 등으로 추세 반전 시 경기 침체 진입할 가능성 - WSJ

(How the U.S. Economy Became Hooked on AI Spending)

■ 연준의 상설레포기구, 낙인 우려에 따른 사용 기피 등이 실효성 저해 - WSJ

(The Fed's Tool for Calming Short-Term Funding Markets Is Being Tested)

■ 미국 레버리지론, AI 버블 우려 등으로 투자자금 유출 압박에 직면 - 블룸버그

(US Leveraged Loans Under Strain as Buyers Yank Cash From Funds)

■ AI 기술 발전, 숙련 노동력 부족 등을 초래할 소지 - 블룸버그

(AI might actually lead to a labor short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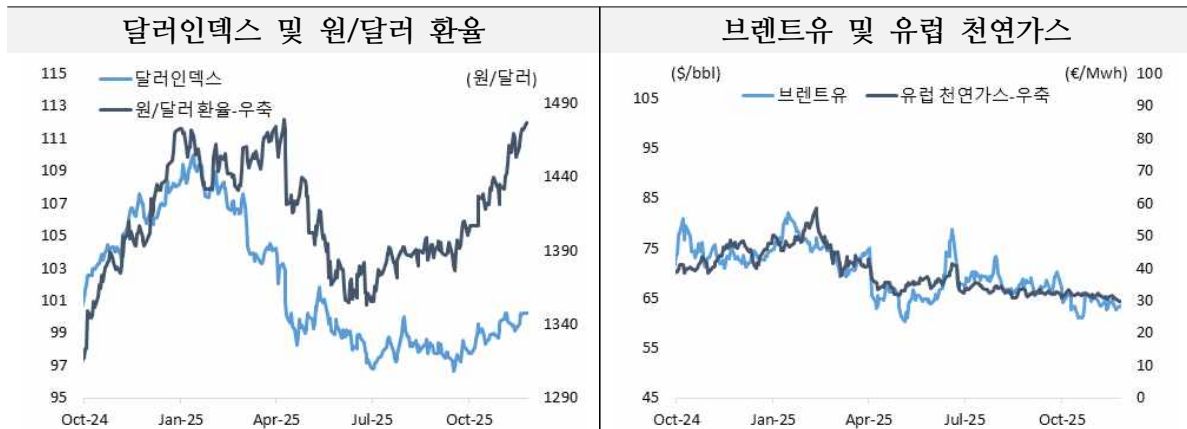
■ 중국, 편법을 통한 지방정부자금조달기구(LGFV) 채권 수익률 제고 확산 - 블룸버그

(Banned Chinese Bond Tactic That Turns 8% Yields Into 16% Is Roaring Back)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